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다’

‘군산문화재야행’ 8월 25~27일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원도심 일원서 개최

군산시는 군산민의 특색 있는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야간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인 ‘2022 군산문화재야행(夜行)’을 개최한다.

‘2022 군산문화재야행(夜行)’은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문화재 거점지역인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및 원도심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군산문화재야행은 ‘지붕 없는 야외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원도심 내 문화재와 문화재 사이를 이어주는 거리프로그램 등 지역의 예술단체와 시민이 함께하는 80(夜) 50여개의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문화재 현장과 온라인 등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문화재해설사와 함께하는 근대문화유산 답사(야행현장답사), 야외 문화재 교실,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등 군산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

고 빛으로 보는 문화재 등 특별한 야경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답사는 매일 2회 3개 코스로 진행되며, 홈페이지(<http://culture-nightgnsan.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비대면 프로그램이지만, 양방향 소통을 통한 현장감을 선사해 주었다고 평가받은 ‘야행맨이 간다(온라인 LIVE체험)’는 전년도의 경험을 살려 현장감을 찾지 못하는 관람객과 야행맨이 실시간 소통하면서 생생한 현장감을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기간 내 지역 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원도심 일원 상가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행사현장에서 보여주면 군산 특산 쌀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일정 확인과 신청은 ‘군산

문화재야행’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산문화재야행은 우리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일제강점기 항쟁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근대문화유산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문화재를 경험하며 코로나19로 지친 심신과 일상에 작은 위트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6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첫 선정된 이래 올해로 7년 연속 개최되는 군산문화재야행은 근대의 숨결을 간직한 문화유산을 매개로 지역민·관광객들이 기다리는 지역의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며 전국적으로 그 우수성을 평가받았다.

/군산=김판곤 기자

‘콘텐츠 창업 토크콘서트 GROW UP’

전북콘텐츠코리아랩, 8월 18일 온·오프라인 진행

전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원장 최용석)은 전북콘텐츠코리아랩의 사업의 일환으로 콘텐츠 창업에 대한 관심 확산과 전북도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마련했으며 콘텐츠 창업에 대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콘텐츠 창업 토크콘서트 GROW UP’을 8월 18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1층에서 진행한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에 운영한다.

콘텐츠 창업에 관심 있는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직접 오프라인 참석신청이 가능하며,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일러스트레이터 그림비 작가의 ‘그림비의 일상이 콘텐츠가 되기까지’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그림비 작가의 스토리와 창업과정을 강연을 통해 알아볼수 있으며 현장참여와 온라인 댓글참여를 통해 작가와 소통할 수 있다.

그림비 작가의 강연 외에 전북도 레드콘 음악창작소 뮤지션의 공연과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자들과 소통과 함께 만들어가는 콘텐츠 창업 토크콘서트는 8월 10일 오후 5시까지



지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현장참석과 온라인참석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콘텐츠코리아랩 누리집(www.jonbukcd.or.kr)을 참고하시면 된다. /김경수 기자

도키텍프로젝트 레지던시 입주작가 6명 선정

8월부터 전주·남원 중심으로 지역영화 제작 진행

도키텍프로젝트협동조합(대표 김현준)은 김지수, 김현중, 금태경, 박태양, 박현준, 오나은 등 6명의 입주작가를 선정, 8월부터 전주, 남원 시나리오 및 지역영화 만들기 활동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예술인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작 공간 활성화, 예술인의 창작환경 조성,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

장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으로, 올해는 거주형과 비거주형에 각각 2개 단체가 선정됐다.

비거주형에 선정된 도키텍프로젝트협동조합은 2017년에 설립된 단체로, 도내에서 영화제작, 배급, 상영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 단체다. 지난 2020년에는 재단의 창작공간 지원사업에 참여해 제작한 단편 영화 ‘스승의 날’이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JPI비전을 수상하고, 2022 피

렌체 한국영화제에 초청됐다.

레지던시 사업 기간 중 입주 작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2회, 퍼블릭 프로그램 3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프로그램에는 작가와의 대화(7, 8월), 제작영화 시사회(11월)가 준비돼 있다.

특히, 이번 도키텍프로젝트 레지던시는 전주와 남원에서 이원적으로 활동이 예정돼 있어 지역민들과의 활발한 문화·예술적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오늘 남원의료원서 실버마이크 전북권 7월 정규공연

전북문화관광재단은 ‘2022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전북권 (Jeolla 및 眞)(이하 실버마이크 전북권)’ 7월 마지막주에 정규 공연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실버마이크 전북권 7월 정규공연은 27일 오후 2시 남원의료원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 남원의료원의 입원 환자와 외래 내원객, 그리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총 5개 팀이 악기 연주와 노래, 무용,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실버 세대가 주체적으로 공연 기회를 마련해 국민의 문화권 확대를 위한 사업이다.

실버마이크 전북권에서는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전북도 20개 장소에서 총 100회의 공연을 진행한다.



한편, 재단과 남원의료원은 지난 4월 업무협약을 체결, 전북도 예술인의 의료복지와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힘쓰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문화사업팀(063-230-7454)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해설이 있는 음악회’ 개최

전주교육대학교 조인트 리사이틀 ‘해설이 있는 음악회’가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공연은 전석 무료다.

이 대학 음악교육과 강효진 교수와 정현주 교수가 손잡은 이번 음악회는 ‘인상주의와 표현주의’를 주제로 강효진 교수가 해설과 지휘를 맡고 소프라노 정현주 교수가 노래한다.

기악 4중주, 노래, 피아노 연주, 노래와 기악 5중주 프로그램으로 이뤄지며, ‘캄버 오케스트라 솔로리스트 앙상블’의 바이올린 한지우, 플루트 박영주, 클라리넷 박은별, 첼로 박상희, 피아노 오정선과 김호경이 함께 연주한다.

한편, 지휘자 강효진 교수는 워싱턴대학교에서 석사(작곡)와 박사(합창지휘)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나온 소프라노 정현주 교수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극립음대에서 솔로성악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장은성 기자

익산예술의전당, 10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 무료 공연

익산예술의전당이 일상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선사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의 ‘2022년도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와 익산시가 주관한다. 이에 따라 아동극 ‘쓰레기꽃’, ‘서커스 데이’ 등 공연을 오는 10월 달까지 매달 송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지난 1일 열린 연극 ‘여름동화’를 시작으로 이달 30일 아동극 ‘쓰레기꽃’을 선보인다. 극단 ‘모시는 사람들’의 작품인 ‘쓰레기꽃’은 쓰레기장에 핀 민들레를 보며 생명의 소중함을 다루는 아이들을 위한 연극이다.

9월 3일에 공연하는 ‘서커스 데이’는 서커스 드라마와 마술, 퍼포먼스, 마임 등 5개의 개인작과 단체작 ‘또다시 서커스’로 구성된 하루 서커스 축제다.

10월 1일에는 선보이는 음악극 ‘마법사의 제자’는 클래식을 기반으로 무용과 연극, 미술 등이 어우러져 다채로운 콘텐츠를 보여준다. 독일의 대문호 ‘볼프강 폰 괴테’의 동명 작품을 배우들의 익살스러운 연기와 클래식 앙상블 연주로 전한다.

‘문화가 있는 날’ 마지막 공연은 10월 29일



연극 ‘어린왕자’를 공연할 계획이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의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명작은 익산을 대표하는 극단 작은소리들과의 스타일로 재구성돼 펼쳐진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하고 관람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